전남도, 재충남호남향우회와 고향사랑 실천 캠페인

전남도가 본격 휴가철을 맞아 보령머드축제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전남 고향사랑실천 캠페인을 지난 28일까지 3일간 펼쳤다. 〈사진〉

천정순 재충남호남향우회장과 향우회원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홍보부스를 방문해 홍보활동에 힘을 보태는 등 고향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홍보부스에선 피서객 대상으로 전남의 매력적인 관광지와 특산품,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와 고향사랑기부 캠페인 등을 설명했다. 서포터즈 가입 희망자와 관광지 정보 등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발길도 계속됐다.

전남도는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모집 시즌2'를 통해 전남사랑도민증 할인가맹점을 늘리고, 서포터즈 가입 혜택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자발적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층 여름이불 전달

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형빈)는 최근 복지사각지대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사진〉

이번 사업은 저소득 계층 40세대에게 여름이불을 지원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시원한 여름나기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계층 각 가정을 방문해 이불을 전달하고, 위생 상태 점검, 안부를 확인하는 활동도 했다.

주영주 지원1동장은 "여름 장마철이 이제 서서히 꺾이면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덥고 습한 여름철을 쾌적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북구 꽃동산어린이집 좋은이웃어린이집 현판식

굿네이버스 호남충청권역본부(본부장 정용진)는 광주시 북구에 위치한 꽃동산어린이집(원장 임정자)에 '좋은이웃어린이집' 현판을 전달했다. 〈사진〉

꽃동산어린이집은 아프리카 모잠비크 아동을 일대일 결연하며 국내·외 아동들의 권리를 지키는 '약속의 시작'에 참여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산구급식관리지원센터, 아이셰프 클래스 교육

광산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양은주·호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26일 복지관 1층 체험관에서 개미와베짱이어린이집, 푸른숲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아이셰프 클래스' 영·유아 체험관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 날은 치카치카 이 닦기 위생교육과 아이들의 편식예방을 위한 푸드아트 요리활동인 또띠아 얼굴 만들기를 진행, 이 닦기와 골고루 먹기 등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호남대, 드론방제봉사단 발족 농약 방제 봉사

호남대학교 로봇드론공학과(학과장 김광택)는 지난 24일 드론방제봉사단 발족과 함께 첫 방제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드론 조정 기술이 우수한 재학생 5명과 지도교수 1명, 외부 자문위원 1인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함평 손불면에서 논과 밭 약 3000평을 2시간에 걸쳐 친환경 농약 방제작업을 진행했다. 로봇드론공학과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드론 정비, 고정밀 드론 방제 기법을 활용했다.

호남대 드론방제봉사단은 산불 진압, 재난구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여대 치위생학과 고려인자녀 진로 탐방 교육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치위생학과는 지난 24일 치위생학과 CDHC센터에서 실습실을 개방, 고려인 자녀의 진로 취업 탐방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고려인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캠프' 프로그램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학과 진로, 취업 탐방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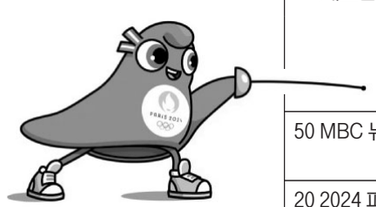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혁신부문 부문장 김략균(신임)

TV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25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생정보 스페셜 30 올림픽 하이라이트	00 광주 MBC 뉴스투데이 30 생방송 오늘 아침	10 KBC 모닝와이드 30 SBS 파리 2024 하이라이트
8	25 아침마당	00 2024 파리 올림픽 중계석	30 광주MBC 보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KBS 뉴스 930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방학특선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다큐 인사이트(재)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헬로키즈 TV생물도감	30 살맛나는 오늘
11	40 팔도밥상 스페셜(재)	00 KBS 드라마 스페셜 셀렉션 〈반쪽짜리 거짓말〉	15 헬로키즈 과학교실(재) 30 토닥토닥 꼬모 새로운 탐험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5 올림픽 하이라이트	20 더 시즌즈 -지코의 아티스트(재)	00 12 MBC 뉴스 20 2024 파리올림픽 하이라이트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SBS 파리 2024 하이라이트
1	00 방학특선 아주 사적인 여행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0 뚝딱구조대 3 2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2	00 KBS 뉴스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55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수영/유도/사격〉	00 뉴스브리핑
3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2024 파리 올림픽 〈트라이애슬론〉	00 여기는 파리 〈배드민턴/탁구/유도/사격 /수영/펜싱〉		00 SBS 파리 2024 〈배드민턴〉
4			55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수영/유도/사격〉	
5	45 2024 파리 올림픽 핸드볼 여자 예선 A조 〈대한민국:노르웨이〉			00 SBS 파리 2024 〈유도/수영/펜싱/탁구 /사격/핸드볼 여자〉
6			50 MBC 뉴스데스크	
7			20 2024 파리올림픽 〈펜싱/유도/양궁/탁구〉	30 SBS 파리 2024 〈유도/수영/펜싱/탁구 /사격/핸드볼 여자〉
8		00 여기는 파리 〈탁구/양궁/배드민턴 /펜싱/유도〉		
9	00 KBS 뉴스 9 50 2024 파리 올림픽 〈농구/테니스〉		55 2024 파리올림픽 〈펜싱/유도/양궁/탁구〉	2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0 SBS 파리 2024 〈펜싱/양궁/유도〉
10				
11				
12			2024 파리올림픽 〈펜싱/양궁/수영〉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미스테리아
07:15 빅 블루
07:3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07:4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한글용사 아이야
08:35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08:50 도레미 프렌즈
09:0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09:05 엄마 까투리
09:20 자이언트 펭TV
09:40 곽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2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귀하신 몸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15:15 클래스 e
15:55 블록스
16:10 딩동댕 유치원(재)
16:30 페파 피그
16:40 마샤와 곰
16:50 도레미 프렌즈 쇼츠
16:55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재)
17:10 한글용사 아이야(재)
17:4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18:10 EBS 뉴스
18:3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19:20 고향민국
19:50 극한직업
20:40 세계테마기행
〈오지게 좋은 스리랑카
-지도에도 없는 오지〉
21:35 한국기행
〈노는 것을 허하노라 2부
먹는 것이 남는 것이여~〉
21:55 건축탐구 - 집
22:50 EBS 다큐프라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30일(음 6월 25일 乙未)

☎ 010-9790-8237

子 36년생 절실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무난하다. 48년생 준비해 두었던 것을 시의적절하게 쓰게 된다. 60년생 바로 응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속을 태울 것이다. 72년생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실익이 없을 것이다. 84년생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6년생 미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29, 84

丑 37년생 인식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라. 49년생 변화를 예고하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칠 것이다. 61년생 부실한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의도했던 방향으로의 전개가 순탄하리라. 73년생 능수능란한 임기응변이 절실할 때이다. 85년생 주의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97년생 속뜻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무의미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0, 65

寅 38년생 성과에 흠뻑 취해서 매우 즐거워하는 형상이 비친다. 50년생 원인을 잘 따져 보아야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62년생 검토한 결과가 확실하다면 과감하게 변경해도 무난하다. 74년생 현재,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86년생 성장을 위한 진통제가 되리라. 98년생 도움을 주는 이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1, 56

卯 39년생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51년생 선입견에 의한 추측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 63년생 상대를 존중해 준다면 무궁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75년생 수인의 한계에 이르더라도 끝까지 참을 줄 알아야겠다. 87년생 결코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 분명히 있느니라. 99년생 모순점을 해결한 후에 조처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22, 82

辰 40년생 애매한 입장이라면 관여하지 않음이 백번 나을 것이다. 52년생 생각지 못했던 점이 돌발적인 형태로 나타나면서 길한 작용을 하게 된다. 64년생 있는 그대로가 가장 나은 형태이니라. 76년생 대안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국세에 놓여 있다. 88년생 불편이 올 수 있으나 머지않아 해소되리라. 00년생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6, 69

巳 41년생 호사다마하는 세상의 이치를 알라. 53년생 미묘한 차이로만 여겨 왔던 것이 큰 변수를 보이리라. 65년생 필요하다면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가는 것도 괜찮다. 77년생 내버려 두면 큰일이 나겠으니 속히 조처하여야만 한다. 89년생 지극한 정성으로써 이루지 못 할 일은 없다. 01년생 이면에서 불씨가 움틀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8, 80

午 42년생 정곡을 찔러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54년생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니라. 66년생 상당한 거리를 둔 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78년생 미진한 부분을 손질한다면 매끄러워지겠다. 90년생 다방면을 고려할 수 있는 현명함이 절실하다. 02년생 관건이 될 만한 핵심 가치에 주목하라. 행운의 숫자 : 30, 58

未 43년생 평상시에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다. 55년생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관리를 잘해야 무리가 없다. 67년생 안정세를 띠기 시작할 것이다. 79년생 흥기가 왕성하니 오래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91년생 끼어들면 시비 수에 휘말린다. 03년생 명료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09, 55

申 44년생 세차게 쏟아질 것이니 우선 피하고 봐야 한다. 56년생 끝부분에 중요한 핵심적 사실이 깃들어 있다. 68년생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절차에 와 있다. 80년생 가부를 분명히 표해야 할 때가 되었느니라. 92년생 호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잡아야 한다. 04년생 체면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27, 83

酉 45년생 모순점이 보인다면 확실히 배제하라. 57년생 한순간에 많이 하려면 힘드니까 평상시에 생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69년생 완벽을 꾀하려다가 오히려 자승자박하는 형편이 될 수 있다. 81년생 수효가 늘면서 다방면으로 복잡해지는 양태가 된다. 93년생 손대지 말고 그대로 유지함이 최상이다. 05년생 전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1, 66

戌 46년생 심리의 저변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포기할 줄 알아야 새로운 것을 취할 수 있다. 58년생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만 오판하지 않는다. 70년생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진행되리라. 82년생 크게 감동하게 될 것이니라. 94년생 장기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06년생 직접 다루어야 할 문제로다. 행운의 숫자 : 04, 64

亥 35년생 집착을 버리고 자유로운 상태로 놔두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47년생 안전에 관한 의식이 우선 되어야 한다. 59년생 믿음이 간다면 선택해도 무방하다. 71년생 세분화시켜서 낱낱이 살펴보고 대응해야 할 단계이다. 83년생 신경 쓰지 않으면 결핍될 수도 있다. 95년생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피로감이 쌓이리라. 행운의 숫자 : 38, 71